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

-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해결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https://fpc.ekr.or.kr>) 오픈을 통해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면·유선·우편 등 분산된 서비스와 방대한 서류 준비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페이퍼리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전주기 서비스 구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자 청구와 환급 도입을 통해 우편통지와 환급 청구서류 준비, 발송, 수기 입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3일 단축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새울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기초정보가 설정되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새울행정시스템 부과·환급 결정 내역과 고객정보가 연동됨으로써 환급 결정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고객의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공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오는 11월에는 전자환급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종이 문서 최소화로 인한 업무 효율화와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혁신은 공사 서비스가 가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이 공사에 대한 이미지 총합이 되는 만큼, 고객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로 바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금관리처	책임자	부 장	조수경 (061-338-5951)
	기금조성부	담당자	차 장	강신명 (061-338-5898)

① 온라인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편의 향상

종 전						개 선	
“농지부담금 관련 서비스 분산으로 이용 불편”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우편	유선 · 대면	「인터넷 지로」	대면 · 팩스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부담금 부과/환급신청	부담금 내역 조회	카드·지로 납부	납입확인서 발급			창구 일원화 및 실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② 행정처리 기간 ‘3일’ 단축으로 고객 만족 및 업무효율 증대

납 부		환 급	
처리 절차 3단계, 소요기간 3일 단축		처리 절차 4단계, 소요기간 3일 단축	
(5단계)4일 소요	(2단계)1일 소요	(7단계)5일 소요	(3단계)1~2일 소요
① 부담금 납입내역 확정	① 부담금 납입내역 확정	① 청구서류 준비	① 온라인 환급내역 확인·청구
② 우편통지	⇒	② 등기우편 발송	⇒
③ 납입통지서 수령		③ 청구서류 접수	
④ OCR/가상계좌 납부	② 온라인 조회·납부, 납부확인서 발급	④ 서류확인	② 청구내역 검토
⑤ 납부확인서 요청·수령		⑤ 신청내역 전산입력	
		⑥ 청구내역 검토	③ 환급
		⑦ 환급	

③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전자화로 연간 행정비용 314백만원 절감

- (종이 · 우편비용)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연간 262백만원*
 - (업무량 감소) 부과 · 수납 · 환급, 납부확인서 발급 등 연간 52백만원**
- * (종이) 5년 평균 부과건수 74,707건 × 고지서 3매 × 17,000원/2,500매 = 1,524,023원
(우편) 5년 평균 부과건수 74,707건 × 등기우편료 3,480/건 = 259,980,360원
- ** (업무량 감소) (부과 · 수납 · 환급 연평균 148,283건 + 납입확인서 발급 연평균 14,581건) × 2분/건 = 679일 * 2023년 최저일급 76,960 = 52,255,840원